

2019년 공탁법 총평과 난이도 의견

이천교 법무사

1. 이 번 공탁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박스형 문제가 대거 출제되었고 출제문제의 지문길이 등 물리적인 양도 조금더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박스형 문제가 작년에는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금년에는 무려 5개나 출제되었고, 출제문제 분량도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그결과 실제 시험현장에서 제한 시간 내에 제대로 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출제문제 내용은, 작년에 비해 집행공탁 관련(혼합공탁, 사유신고 포함)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20문제 중 8문제 내외)된 것 말고는 특별한 사항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몰수보전 공탁이 처음으로 출제되고 새로 나왔던 선례가 출제된 것을 고려하면, 금년 비교적 지엽적으로 배당금 관련 공탁문제가 나온 것 역시 출제범위 관련해서도 더 특별한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 출제지문의 개별 난이도 역시 예년과 비슷해 보이며, 대부분 새로운 내용이나 지문보다는 종전 기출지문들이나 일반적인 내용을 다시 섞어서 혼합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3. 저의 사견으로는 공탁법의 출제범위나 개별 지문의 난이도 등으로만 단순비교 한다면 예년과 비슷하였지만, 박스형 문제가 대폭 늘어나고 출제문제의 지문길이 등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험에서의 평균점수는 예년보다 1-2문제가량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